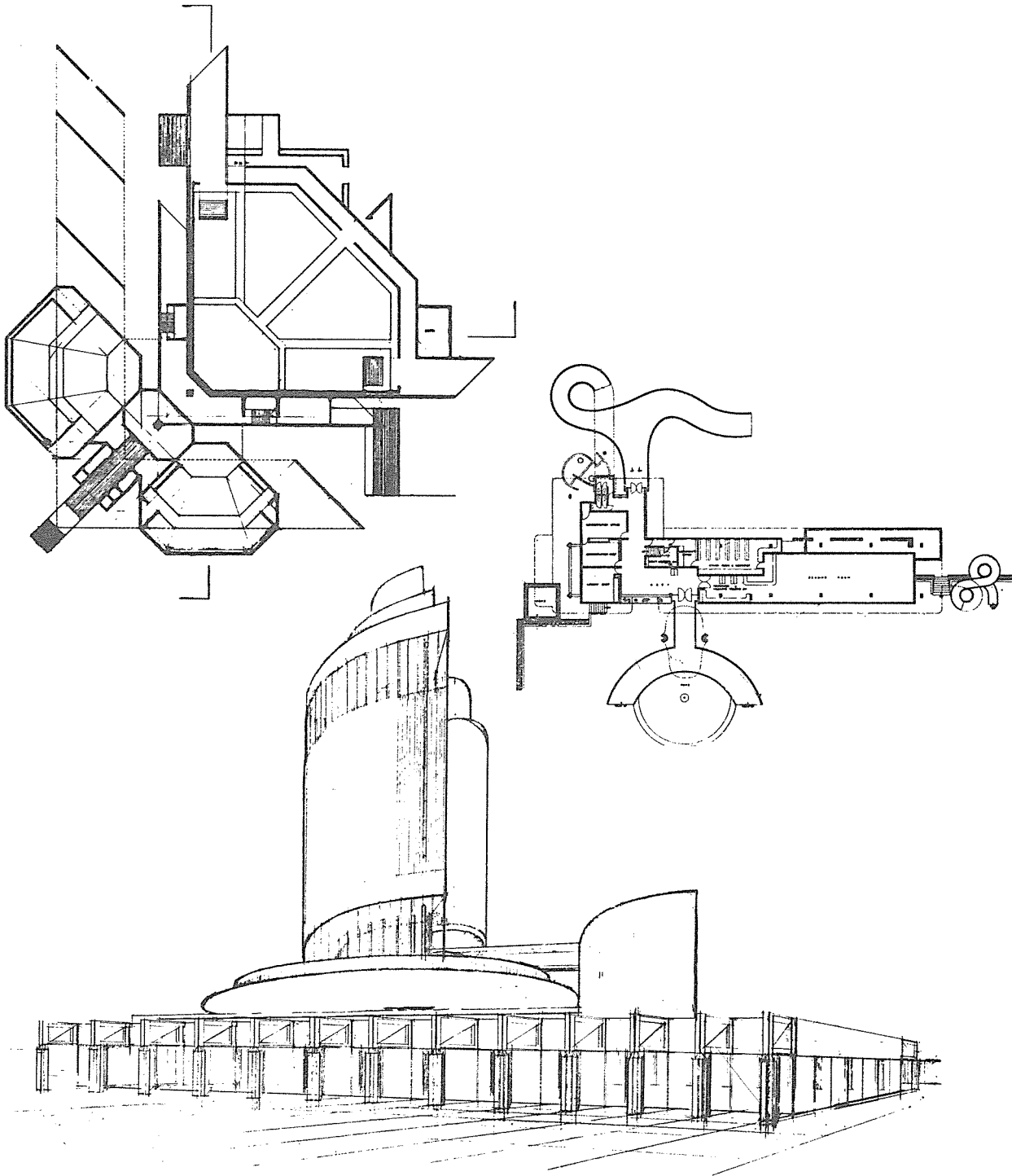


지난 달의 작품에 대해서

오광수 조창걸



으로 파생될 수 있는 소지를 보여 준다.

서부 역사

현재의 서울역전물을 헐고 역전체를 복개하고 이를 人工광장으로 하는 거대한 역사가 광장쪽에서 보면 500m거리를 두고 우뚝 솟아 있게 계획되고 있다. 거대한 타원형의 타워가 접시모양의 원판에 받쳐서 치솟아오르고 있다. 3개의 다른 사상으로 연결되면서 상승하는 이 모뉴멘탈한 건물은 역으로서의 기능과(아래부분) 상징으로서의 만족을 동시에 지니면서 각각 다른 내부공간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역과 오피스, 그리고 타워가 호텔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타워 부분은 두개의 덩어리의 凸凹에 의한 구조로서 일종의 남녀의 성기의 아나르지를 엮어 보여 준다. 광장에서 들어오는 시점을 하나의 공간에 집중시키고, 거기에 다이나믹한 생성의 힘과 이 거대한 다이나믹에 하나의 인간적인 생명,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남녀의 성기를 연상시키므로 지루해버릴, 또는 삭막해 버릴 공간 속에 하나의 훌륭한 生命의 조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쯤 이 건물은 보여주고 있다. 과연 역으로서의 기능과 오피스, 호텔과의 기능의 혼잡이 얼마만큼 극복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 외부의 조형적 스케일 감각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 문제는 이 건축이 세워지고 난 후에 닦쳐올 직접적인 성질의 것이다.

해조음이라도 들릴 것 같은 조개모양의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어프로치, 나선형으로 꼬이는 후면의 입구단계를 보여주는 평면은 어패류의 아나르지를 연상케 하는 데서, 이 건물이 지니는 기능성과 상징성이(제주도란 지역성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훌륭한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의 감각은 불란서 대사관의 한 연장같이 생각된다. 불란서 대사관이 보다 명확한 구조의 모습의 표현이 강한데 비해서 곡면과 구조의 유기적인 리듬 때문에 전화적인 분위기는 나약하며 우아하게 보인다. 이 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우아한 곡면과 유기적인 면의 처리가 의미없이 반복됨으로써 쉽사리 만버리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과, 콘크리트의 프라스틱한 성질을 잘 표현하면서 그 非情性을 배제할 수 있는 서정적인 감도를 전할 수 있다는 두개의 국면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위로 퍼지면서 올라가며 지지되는 기둥들의 표현은 경쾌한 리듬감을 자아내면서 이 건물 전체의 통일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제주대학 수산학부

본관 건물과는 대조적인 포름의 감도를 지닌다. 단조한 포름, 콘크리트 벽면의 획면적인 바리에이션으로 구조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듯이 보인다. 정면의 한쪽으로 치우듯 타워 역시 이 건물이 가지는 단조한 포름의 반복을 깨뜨리는 고심의 결과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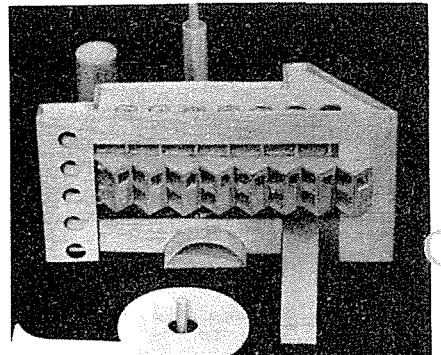
西江大學의 구조적 연장. 그러나西江大學본관보다 에페베이션의 지나친 규칙적인 구성적배려가 한결 감동을 지워버린다. 구조의 어떤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자체의 완성으로서 훌륭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어떤 비전, 이 건물의 경우, 구조적 가능성이

EXPO 건축은 하나의 테크닉 건축이다. EXPO '70 한국관은 지금까지의 한국적이란 에피세트로 도매되었던 어설픈 전통취미를 전연 개의치 않은 거대한 圓筒의 列柱로서 形象化되었다. 列柱를 연결하는 트라스, 이 가운데 展示空間이 계획되었다. 원통의 기둥과 직선적인 면의 대조가 리듬을 만들며 맛스의 긴장감을 일으키는 外部空間에 비해, 내부공간은 列柱와 展示공간의 기능적인 연결이 훌륭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列柱의 내부공간을 전공간으로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外部空間의 다이나믹한 조형성을 강조한 나머지, 내부공간의 기능 상실이 초래됨으로써 실제 조화되는 건축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 명쾌한 列柱의 다이나미티가 工業 한국의 성장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될 때가 많다. 이것은 일반대중 측에서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과오이다.

여의도 교회

서로 파생되어 가는 3각형의 평면으로 발전되는 내부공간의 스케일감각은 외부벽면볼록의 구조에서도 연결되어 상승해 가는 기원의 자세로서 3각형이 주는 상징을 조형화하고 있는 듯하다. 외부공간의 구조적인 전개는 확실히 조각적인 맛스와 맛스가 자아내는 프라스틱한 리듬과 여기서 생겨나는 긴장감이 교회로서의 모뉴멘을 만족시켜 준다. 연속적인 단계의 발전이 위로 오를수록 十字梁의 한 지점으로 集中的으로 집약되어감으로써 상징성을 강조한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건물은 현대의 고딕이다.

구조 그것이 건물의 기본적인 리듬과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있어 모뉴멘으로서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예배당과 부속기구의 주종의 기능적 연결이 두개의 3각형으로 이



김수근씨의 여의도 계획

건축가에게 주어진 임무란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관찰 함으로써 얻어지는 논리를 통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함으로써 좀더 올바른 발전으로 사회를 LEAD 해 나가므로써 좀더 우수한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인 질서를 발전하여 형상화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의 현실 파악만을 통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규명하려는 안이한 사고는 반드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잡지뿐 아니라 종합보고서 전부를 읽어 보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의 성장이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도 규명되지 않은채 단지 현실의 욕구만을 받아드려 이를 더욱이 변질된 서구의 단어로 구성된 논리로 관찰한 후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해 보려는 허무한 시도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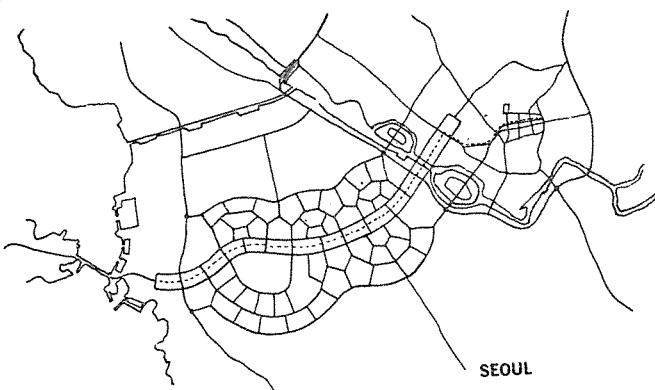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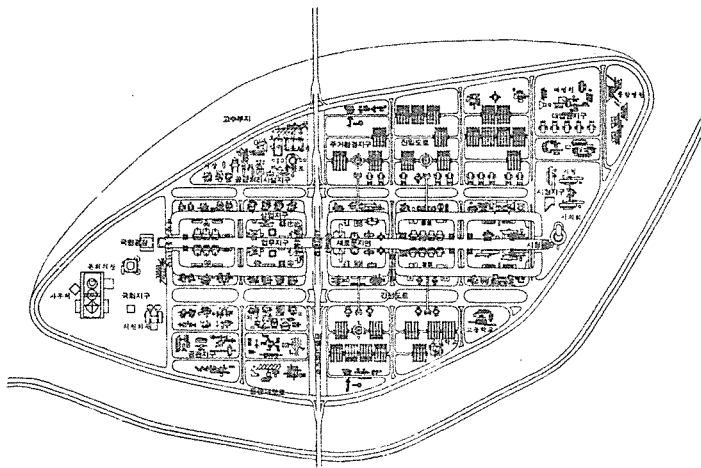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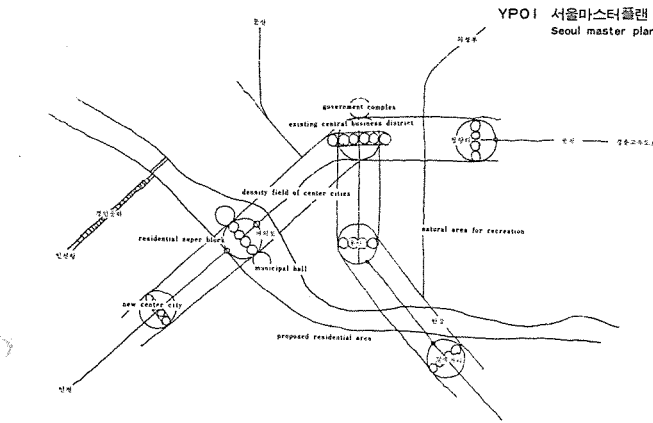
건축가가 사회의 요구를 그대로 비판없이 받아드릴 때 이는 스스로 사회의 LEADER로써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안이한 기능공으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기능공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그 사회는 반드시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김태수씨의 서울 마스터프랜

도시의 성장이 올바른지의 여부보다는 기존도시의 고통에 지나친 연민의 정을 보냄으로써 단지 현실에 대해 욕구의 해방에 대해서만 전력하는 것은 한 도시의 발전을 뜻하기 보다는 오히려 붕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서울 마스터프랜의 작가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단지 TRAFFIC SYSTEM의 개선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활이 TRAFFIC SYSTEM에 의하여 그렇게 변모되어도 올바른 성장이라고 확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은 그렇게 단순한 불합리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며 생활이 변천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서울 MASTER PLAN에 대한 VISION이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런대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건축가의 임무가 단지 사회의 일분야의 개발에 있다기 보다는 계사회현상의 변화를 종합하여 조화시킴으로써 한사회 발전이 이룩될 수 있게 하는 데 더욱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은 비난의 대상인 수 밖에 어으 1962.1.1



조창걸씨 주택

기능적인 몇가지의 해결외에는 집장사의 집과 별로 다를것이 없는 졸렬한 작품임. 이러 한 단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한 작품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담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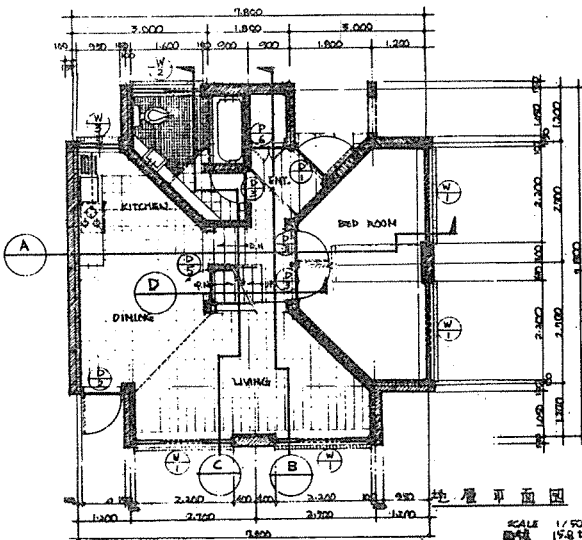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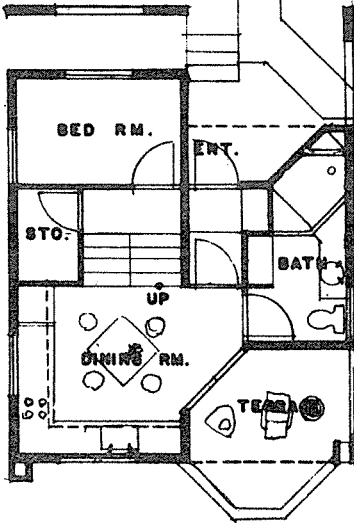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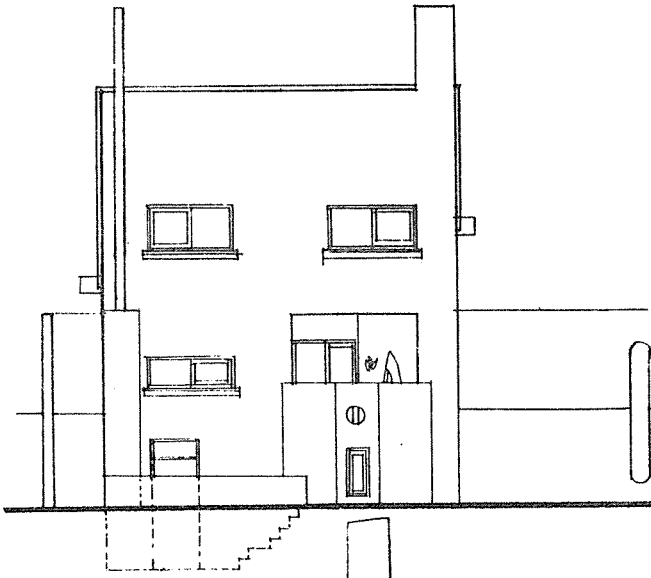
투인하우스

건축은 어느 의미에서는 공간의 항목적인 구성이다. 조화되게 형성된 공간은 용도에 관해서도 타당한 것이다. 아마도 작가는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온듯 하다.

그레나 역시 건축가의 첫째 행위는 그에게 맞겨진 설계 조건을 건축의 영역으로 변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때 비로서 건축의 평면은 광선에 비추어진 공간의 조화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집에서는 이 부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그 구조와 개구부들의 성격에 의하여 깊이나 두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건축공간이 갖게되는 공간의 조화 혹은 밀도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바의 것이 빈약하다. 그리고 항목적이지 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미와 가치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만든 집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파격이 이루어 놓은 것은 대각선의 벽, 천정, 천창등의 자극적인 요소들의 모습 뿐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공간으로 연계되지 않고 요소들로서만 존재한다. 현관입구에서 부터 소위 집내부의 코아 안부분(천창아래)까지의 어프로치에는 깊이가 없고 코아부분의 공간 처리가 미숙해서(천창과 정면의 창문, 천정과 벽면등의 연계가 엉성하다) 좀 특이한 집(우리나라 집장사 집에 비해서)이라는 느낌이 되는 별다른 것이 없다.

사각의 지붕 귀를 도려내고 지붕위에 이상한 스케일로 천창이 돌출하고 입구의 벽이 짜개져 내려오는 등 주택의 스케일로는 곤란한 여러 기교가 도입된 형태는 오히려 어느시각에서 만의 쾌감(확실히 이것은 취미와 관련된 쾌감이다)만을 유인한다.



서부역사

PROJECT 자체가 한지역 및 한국가의 발전의 상징이 여건의 상징이어야 하며 그 지역 및 그 국가의 올바른 성장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와 권리를 건축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자연이란 거의 푸른하늘뿐인 MAN MADE SPACE 속에 세워질 이진물이 과연 잘못 성장하고 있는 주변지역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규범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구조적인 기능적인 또한(이런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SPACE 에 대한 대담한 시도들이 강력한 VISION 에 까지 이르지 못한 채 단순한 테크닉으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넘쳐 있습니다. 역시 한 사회의 LEADER 로써의 건축가 이기보다도 한 테크니션으로 의안이 속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K. I. S. T.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질서와의 유기적인 조화에 대한 강력한 VISION 의 제시가 가능하였던 PROJECT 를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논리로도 자연의 질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용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무리를 강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BACK GROUND 뒤로 밀려버린 자연과 편협한 의지의 외로운 인간사이의 길은 조화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거리입니다. 본관 역시 스스로의 질서도 갖추지 못한채 몇개의 테크닉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무리와 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순련씨의 SUMMER HOUSE

인간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과의 조화에 대하여 한국적인 언어로써 작가의 VISION 을 성공적으로 제안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불란서 대사관에서의 제안이었다고 비난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내면적인 공감을 통한 제안임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개의 지나친 테크닉과 재료에의 무리한 요구 등의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작품의 우수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